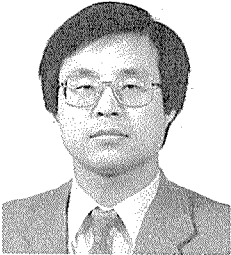


賃金問題 現況과 展望



金 榮 培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 / 經博

노총이 제시한
비율은 우리 기업들이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3년간 성장과
함께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다면
'90년부터는 불황과 함께
임금인상이 자제될
수도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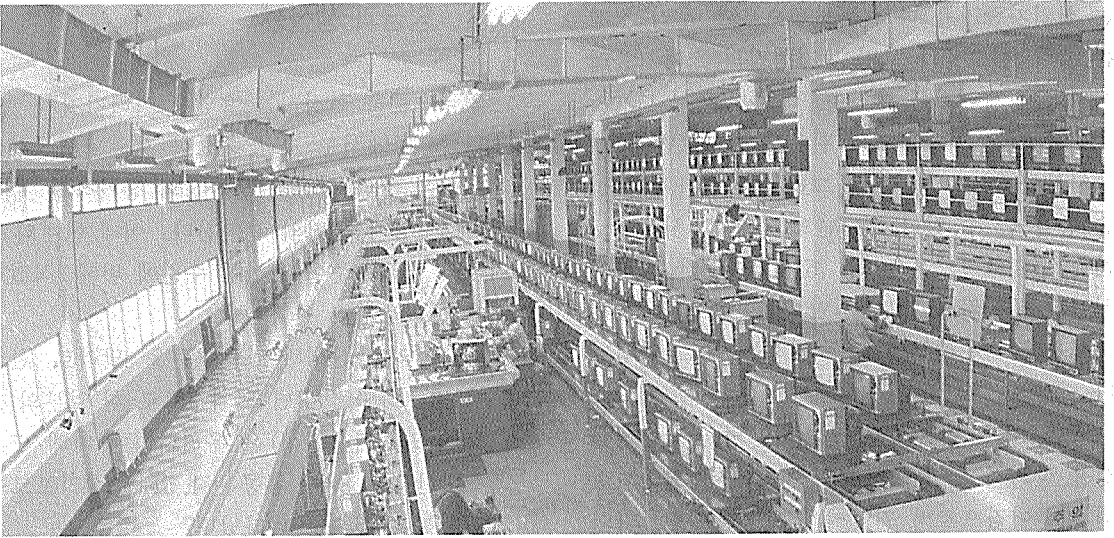
임금을 놓고 나타나는 노사간의 시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사용자들은 임금을 노동의 가격으로 보는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노동력의 가격으로 보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시각에 의하면 임금이란 투입된 노동력(노동)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가격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듯이, 노동력의 가격 역시 이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생계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이란 어느 특정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외에도 원재료와 기계설비가 필요하고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전력·수도료, 세금 기타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게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임금교섭을 타결짓는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별기업들은 항상 소비자를 상대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꾸준히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결과가 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역작용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근로자는 생계비를 중심으로 매년 임금인상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 자체의 객관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무작정 생계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기업은 임금 몇% 인상때문에 더 큰 곤란을 자초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따라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시키고 사용자는 노사협력의 바탕 위에서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임금인상의 가장 빠른 길이다.

가령 부가가치 중 인건비의 비율(노동분배율)이 70%가 넘는 광업이나 섬유봉제업의 경우를 보면 분배구조는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0만원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분배율이 20%에 불과한 특정 석유·화학업의 평균임금은 100만원을 넘는다.

따라서 섬유봉제업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용자의 이익을 다 가져가도 임금의 상당한 인상은 어렵다. 오히려 노사가 협력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임금의 실질적·계속적 인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경제현황과 전망

지난 '86년 이후 연 12%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경제가 지난해에는 6.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우리경제가 앞으로도 여전히 고도성장을 지속, 선진대열로의 진입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낱게 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이 '89년 3.6%에 그치고, 제조업 설비투자 역시 '87년 31.8%에서 지난해 8.5%로 낮아져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회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퇴조는 '87년 이후 계속되어온 격심한 노사분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억제화와 사회전반에 걸쳐 자기 못 확보경쟁 그리고 과소비 풍조의 팽배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였고, 최근 들어서

경제관련지표

	단 위	'87	'88	'89(잠정)
GNP 성장률	불변, %	12.8	12.2	6.5
GDP 성장률	"	11.8	11.3	5.9
(비농림업)	"	15.5	12.6	7.5
(제조업)	"	18.3	13.0	3.6
경상수지	억 달러	99	142	50
무역수지	"	77	115	43
(수출증가율)	%	23.8	13.0	-6.3
(수입증가율)	%	20.9	14.3	14.6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는 취업자증가를 마저 둔화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고실업,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적 경제위기에 빠졌다.

이와 같은 성장퇴조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노사분규, 고율임금인상 그리고 원화가치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89년의 경우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13억 6,300만달러 그리고 직간접 생산차질액은 4만 1,995억원에 달해 노사분규가 우리산업에 준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또한 '87년 이후 임금인상률은 줄곧 노동생산성을 상회하고, '86년 이후 계속해서 원화절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도 약화시켜 수출부진, 기업의 투자욕 감퇴,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노사분규 및 산업피해

	노사분규 건 수	생산차질액 (억원)	수출차질액 (백만\$)
1988	1,873	32,020	732
1989	1,616	41,995	1,362

자료: 상공부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우리기업의 투자마인드를 크게 저해시켰고, 투자의 방향도 노동절약적인 자동화 방향으로 전환시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이 컸다. 따라서 지금 부터는 이와 같은 고율 임금인상과 경제·경영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3. 임금과 생산성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이에 따라 임금과 생산성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양자는 거의 같아진다.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생산성 수준에 비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국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88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은 우리나라에 비해 7.0배, 대만은 1.8배, 홍콩은 1.5배, 싱가포르는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총액임금 평균수준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4.08배, 대만 0.98배, 싱가포르 0.98배 그리고 홍콩 0.86배이다. 즉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근 3년간 고율의 임금인상에 힘입어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앵겔계수 또한 점증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89년 2/4분기 현재 65만 5,648원으로 '88년 2/4분기 대비 24.0% 높아졌고,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계평균 흑자율은 '89년 2/4분기 현재 16만 3,169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경영수지를 보면 비록 인건비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한 국	일 본	대 만	싱 가 포 르	홍 콩
총액임금평균 (1988년)	652.5 (100.0)	2,665.1 (408.4)	643.1 (98.6)	644.3 (98.1)	564.0 (86.4)
국민경제생산성 (1989년)	633.1 (100.0)	44,355 (700.6)	112.85 (178.2)	10,980 (173.4)	20,285 (320.4)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에 달해 최근 3년간의 고율 임금인상이 우리 기업의 경영수지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또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의 임금 인상이 수출기업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왜냐하면 수출업체의 경우 고율 임금인상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분석에 따르면 '89년 상반기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5.6%에 그쳐 '8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액 신장률이 각각 -1.8%, -0.99%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채산성도 극히 악화, '86년 5.3%였던 제조업수익률이 '89년에는 1.8%로 급격히 하락했다.

현행 우리기업의 재무구조를 외국기업과 비교해 보면, 최근 상당히 개선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때문에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 일정기간 높은 내부유보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와 같은 개선은 여전히 힘들게 되었다.

제조업 수익률 추이

(단위: %)

	1986	1987	1988	1989(잠정)
수익률	5.2	3.9	2.6	1.8
(변동)	1.3	-1.3	-0.3	-1.8

주) 수익률 = (영업이익 - 금융비용) / 매출액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사실외에도 노동비용의 상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위당 노동비용은 임금, 노동생산성 그리고 환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고율의 임금인상은 노동의 단위비용인상을 통해 수출단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단위비용 증가에 대한 명목임금 상승 기

여도는 '86년 30.3%에서 '89년 2/4분기는 62.6%로 임금인상이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기여한 정도가 점차 증대해 왔다. 이러한 단위노동 비용의 증가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부진 및 성장둔화를 초래했다.

일본의 경우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시기에 임금인상의 자체와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환율절상의 충격을 흡수하여 국제경쟁력 저하를 방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율절상, 임금상승, 노동생산성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어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시켰다.

4. '90년 임금인상전망

한국노총은 지난 1월 5일 17.3%에서 20.5%의 '9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제시하였으며 經總은 이에 대응하여 7%의 경영계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였다.

노총이 제시한 비율은 우리 기업들이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3년간 성장과 함께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다면 '90년부터는 불황과 함께 임금인상이 자체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생산성 상승분을 초과한 임금인상은 생산과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설혹 과도한 임금인상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민첩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된다면 임금인상의 폐해를 극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절대수준의 생산성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우리기업들이 한계상황까지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90년의 임금인상은 노·사간에 한자리수 이내에서 타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기업을 위한 필연일 수 밖에 없다.

